

초연결 사회 구현... “상반기 美서 5G 스마트폰 출시”

SAMSUNG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9’ 개막에 앞서 미래 비전과 2019년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프레스크론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50년 역사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은 “삼성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진보를 누릴 수 있도록 기기 간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삼성전자가 보유한 광범위한 제품군을 인텔리전스 플랫폼 ‘빅스비’와 연동해 기존에 없던 혁신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5G 장비로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을 받았으며, 상반기 내에 미국에서 첫 5G 스마트폰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5G 분야에서의 자신감을 표현했다.

‘QLED 8K’ TV 98인치 첫 공개

삼성전자는 ‘QLED 8K’ TV 98인치 제품을 이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QLED 8K 98형 신제품은 CES 혁신상을 수상한 AI 기반 ‘퀀텀 프로세서 8K’ 외에 업계 최초로 HDMI 8K 60P 규격을 탑재하고, AI 코덱을 적용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프레스크론퍼런스에서 김현석 사장이 삼성의 ‘뉴 빅스비’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해 소비자 8K 콘텐츠를 더 완벽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기술 담당 상무 비이 윈스턴은 무대에 올라 “삼성전자의 AI 코덱으로 프라임 비디오 고객들은 8K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19년형 스마트 TV로 ‘뉴 빅스비’가 적용돼 더 자연스러워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시청 이력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유니버설 가이드’의 진화를 직접 시연했다.

예를 들어, TV를 켜면 유니버설 가이드가 사용자가 즐겨보는 축구경기를 추천해 주고 경기 시작 전까지 다른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다면 ‘어제 본 거 들어줘’라든지 ‘10초 뒤로 돌려줄래?’와 같은 명령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애플 협업 아이튠즈 공개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협력을 통

해 2019년형 스마트 TV에 TV 제조사로는 최초로 아이튠즈 서비스를 탑재하고 아마존·구글의 AI 스피커와도 연동해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 데이비 다스 상무는 “삼성 TV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스크린이 아니라 초고화질과 초대형 스크린, AI와 연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궁극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디스플레이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4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패밀리허브’ 신모델도 첫 공개했다.

2019년형 패밀리허브는 뉴 빅스비를 탑재해 복잡한 기능도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고,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타 기기와의 연동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시장을 공략할 프리미엄 드럼 세탁기 신제품을 공개하고 AI 기능이 강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 주목받았다.

AI 탑재 가전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TV·가전 외 AI·IoT를 기반으로 집밖의 다양한 소비자 일상을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해결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도 대거 소개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S펜과 360도 회전 터치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삼성 노트북 Pen S’, 강화된 쿨링 시스템과 엔비디아 신규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 업무와 게임 모두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게이밍 노트북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알라나 코튼 모바일 담당 임원은 “변하는 소비자 업무·학습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으로 모바일 에코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콕핏 2019’ 첫 선

전장 부문에서는 하만의 디지털 콕핏 담당 아빈 발루 상무가 무대에 올라 전년 대비 연결성·개인화된 사용 경험·안전성이 강화된 ‘디지털 콕핏 2019’를 처음 선보였다.

디지털 콕핏 2019는 뉴 빅스비로 연결성이 강화돼 차 안에서 집 안의 스마트 기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갤럭시 홈’을 통해 집에서도 차량의 주유 상태나 온도 등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디지털 콕핏 2019는 총 6개의 스크린을 장착해 개인별 최적화된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하고 이동 중에 ‘삼성 텍스’와 연동이 가능하며, 미래 대체 비전 시스템과 카메라 기반의 안전 운전 솔루션을 적용해 안전성도 대폭 강화했다.

NPU 기반 시퀀스

반도체 부문에서는 DS(디바이스 솔루션) 미주총괄 짐 엘리엇 전무가 무대에 올라 “향후 2~3년 안에 더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가 아닌 디바이스 자체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도 이런 트렌드를 대비해 차세대 기기에 활용될 신경망 처리장치(NPU) 기반 AI 칩과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전장 분야에서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량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와 차량용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오토’ 브랜드를 론칭하며 모바일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자동차 반도체 시장으로까지 넓혀 나가고 있다.

‘삼성봇’ 공개

삼성전의 차세대 AI 프로젝트의 일환인 ‘삼성봇’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전자 AI센터장 이근배 전무는 “삼성봇은 건강·환경 등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대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실버 세대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반려 로봇인 ‘삼성봇 케어’로 다양한 서비스를 시연했다.

‘삼성봇 케어’는 사용자의 혈압·심박·호흡·수면 상태 측정뿐 아니라 사용자의 건강 이상을 점검하고 복약 관리도 해준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인포테인먼트’ 강화 상반기 새로운 오디오브랜드 도입

추교용 상무 CES 기자간담회



추교용 현대·기아차 인포테인먼트개발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스·JBL·크렐 이외에도 새로운 오디오 브랜드를 올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라며 “기존 오디오시스템은 스피커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향후 실내 인테리어나 구성할 때 스피커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새로운 오디오 브랜드 제품을 도입과 신기술 적용을 통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추교용 현대·기아차 인포테인먼트 개발실장(상무)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스·JBL·크렐 이외에도 새로운 오디오 브랜드를 올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라며 “기존 오디오시스템은 스피커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향후 실내 인테리어나 구성할 때 스피커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기아차가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는 보스·JBL·렉시온·크렐 등으로 도요나 렉서스 등 다른 브랜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올 상반기 새로운 브랜드 제품을 탑재함에 따라 향후 출시되는 차량에 차별화된 사운드 튜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마트폰(애플 iOS, 구글 안드로이드)처럼 자동차에 탑재되는 운영체제(OS)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리눅스 기반의 자체 OS의 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추 상무는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구글 OS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글의 통제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현대·기아차도 현재 다양한 OS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향후 리눅스 기반의 OS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기아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 적용된 3D 디지털 클러스터(계기판)도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IT) 성능 향상으로 운전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올해부터 전자기술센터에서 담당했던 3D 계기판 기술을 인포테인먼트 연구개발 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ysw@

전시관 안으로 들어온 폭포... LG의 기술력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 LG 씽큐 시존·로봇·가전 등 전시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2044제곱미터(m²)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한 LG전자의 ‘CES 2019’ 부스에 들어서자 웅장한 폭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 붙여 만든 초대형 ‘올레드 폭포’ 조형물이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올레드 화면의 웅장함에 관람객들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폭포를 지나자 5대의 TV가 각기 다른 높이로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LG전자가 이번 CES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TV를 시청할 때에는 화면을 펼치고 시청하지 않을 때에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 넣을 수 있다. TV 화면이 말리고 펴지는 동안에도 올레드의 화질은 유지된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바로 뒤에는 88인치의 8K 올레드 TV가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제품에는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알파9 2세대’가 탑재됐다. 실내 밝기와 설치 위치 등 고객의 시청환경과 콘텐츠를 분석해 최적의 화질과 입체 음향을 제공한다. 또한 알파9 2세대 프로세서는 풀HD(1920×1080) 및 4K(3840×2160) 해상도 영상을 8K 수



‘CES 2019’의 LG전자 부스에는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 붙인 초대형 올레드 폭포 조형물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운 기자

준의 선명한 화질로 업스케일링한다.

캡슐 맥주 제조기 홈브루도 눈에 띄었다. LG 홈브루는 대표적인 영국식 에일 맥주인 페일 에일, 인도식 페일 에일, 흑맥주, 밀맥주, 친숙한 라거 맥주인 필스너 등 인기 맥주 5종을 취향에 따라 직접 제조할 수 있다. 전면에 있는 화면을 통해 맥주가 발효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용앱을 통해 맥주의 상태를 확인하고 SNS 등에 공유할 수도 있다. 씽큐는 더욱 똑똑해졌다.

‘LG 씽큐 AI존’에서는 새로워진 LG의 인공지능 기술이 시연됐다. 예컨대 기존에는 사용자가 공기청정기를 꺼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명령만 실행하고 끝났다.

국내에선 제법 익숙해진 의류관리 가전 스타일러도 전시돼 있었다. 관람객은 스타일러 안의 옷이 흔들리며 관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분에 의류를 최대

200번 움직여 먼지를 털어내는 ‘무빙행어’ 기술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스타일러의 기술력과 관련해 “LG가 의류 관리에 관한 모든 특허를 받은 이후 경쟁사들이 스타일러와 유사한 제품들을 출시했다”며 “의류 관리 부분에서 우리의 기술력이 앞서있고 무빙시스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전시관 한 편의 로봇들도 눈에 띄었다. 허리근력 지원용 ‘LG 클로이 수트봇’ 신제품을 비롯해 총 5종을 전시한다. 전시가 진행되는 8일부터 11일까지 하루에 세 번 다양한 배경을 통해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탁 성능이 향상된 트윈워시와 건조기 세트는 나란히 붙어있었다. 기존 3방향의 터보샷이 5방향으로 향상돼 세탁 성능이 좋아졌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운 기자